

물러터진 군대규율



문명철 기자의
국방 칼럼

엄정해야 할 법규가 흐트러지면, 군대는 힘없이 늘어나는 옛가락마냥 휘어져 잘려나간다. 도덕성이 땅에 떨어져 상관을 살해하는 사건이 빈번했던 베트남전 당시의 미군처럼 우리 군도 추락하게 될지 모른다.

지난 13일 춘천지방법원은 상관인 여성 소대장과 중대장을 성기에 빗대 모욕한 병에 6개월 선고유예를 내렸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유예한 기간이 지나면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즉, 시간 지나면 없었던 것이 되는 셈이다.

지난해 9월에 전역한 가해자는 같은 해 3월 다른 병들과 휴먼장에서 대화를 하던 중 여성 중대장과 소대장을 성기에 빗대 "큰XX가 가니, 작은 XX가 갑친다"며 모욕을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재판부는 가해자의 행위가 군의 명령 및 지휘체계를 흔들며 국방력 감소의 위험을 초래할 것이란 점을 지적하면서도, 가해자가 초범인 점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 전역을 해 재발 위험성을 알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양형을 내렸다.

피해자인 중대장과 소대장은 자신들의 관용이 균열을 흔들게 되고, 여성 전우들이 이러한 선례를 따르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현역 때 영망인 장병이 예비역이 돼서 군인답게 행동할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수년 전 서울 관악구의 모처에서는 예비역 중위가 예비군 훈련 중에 총을 던지고 군복을 풀어제치며 난폭한 행동을 한 적이 있다. 해당 지역 예비군 동대장의 통제에 불응한 그는 오히려 군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다. 무슨 이유로 자기에게 예비군 소대장 임무를

부여했냐는 것이다. 당시 그는 군복도 엉망으로 입었고 타 예비군들에게도 폭력적으로 행동했다. 뒤에 확인한 사실이지만, 그는 현역 시절 근무평정이 좋지 않았던 예비군이었다.

대한민국 예비군의 복장규정은 느슨하기로 따지면 세계 최고수준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그까짓 정도야...'라는 인식이 문제를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령인 군인복제령과 예비군법에는 예비군의 복장규정을 엄밀히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규에 따라 군복착용을 위반한 예비군에 대해서는 훈련부대가 훈련입소를 거부해야 하지만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다. 엄격히 적용하면 이러한 예비군들의 민원과 언론제보에 시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금장에 날개달린 큼지막한 예비군 휘장이 부착된 전투모는 애교에 해당된다. 예비역 소령으로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게 되면, 형형색색의 자수와 전투복에 부착해서는 안되는 각종 총천연색의 부착물과, 만화 등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부착된 군복을 입고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일본 만화나 영화에 등장하는 폭주족들의 복장을 연상케 한다.

군복무 기간은 줄어들고, 병력자원도 줄어드는 시점에서 예비군이 줄어드는 상비군을 보완할 핵심 전력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과연 이런 규율로 어떻게 유사시를 대비할 지 우려된다.

강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첨단장비의 전력화, 장병들의 헌신에 맞는 현실적 보상과 함께 엄정한 법규의 적용도 중요하다라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군대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사회재교육 기관이란 측면도 명심해야 한다. 여성에 대한 왜곡된 성의식을 가진 청년을 바로잡지 않고 놔둔다면 위험의 불씨는 사회로 번져 나갈 것이다.

/captinm@metroseoul.co.kr



"시몬스 테라스서 가상 여행 떠나요" 경기 이천에 있는 '시몬스 테라스'가 또다른 전시로 고객들을 맞이한다. 14일 시몬스에 따르면 복합문화공간 시몬스 테라스에서 'Virtual Jetty: 버추얼 제티' 전시를 시작했다. Virtual Jetty: 버추얼 제티는 자유로운 여행에 대한 갈망을 '가상의 여행'을 통해 풀어냈다. /시몬스

레코드 '나이키 컬렉션' 판매 수익금 기부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이하 코오롱FnC)이 운영하는 업사이클링 브랜드 레코드가 'RE:CODE by NIKE' 컬렉션 판매 수익금 일부를 셰이브더칠드런 코리아에 기부한다고 14일 밝혔다.

'RE:CODE by NIKE'는 지난해 8월 레코드가 나이키 의류·액세서리에 코오롱FnC의 재고와 원단을 추가해

제작한 업사이클링 컬렉션이다. 레코드와 나이키는 올해 1월까지 판매분을 기준으로 수익금의 5%를 국제 아동구호 단체 셰이브더칠드런에 기부했으며, 셰이브더칠드런은 기부액을 어려움에 처해있는 국내의 아동을 돕는 데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퍼블리시티권은 무엇인가



박 상 오 변호사의
엔터테인먼트 LAW

#인기 연예인인 A는 여의도에서 촬영을 마치고 잠깐 서점에 들렀다가 깜짝 놀랐다. 서점한 코너에 자신은 전혀 들은 적도 없는 자신의 이름과 얼굴 사진이 표지에 크게 인쇄되어 있는 책("인기 연예인 A의 모든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 책에는 A의 인생사가 정리돼 있었고, 표지와 본문 중에 A의 얼굴 사진, 전신 사진 등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인격권으로서 '초상권'을 갖는다. 그런데 인격권은 본래 사람의 초상 등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초상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은 연예인, 유명 운동선수의 초상 등과 같이 특별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초상을 보호하는 데에는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미국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프라이버시권(right to privacy)에서 유래하는 권리 중 하나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퍼블리시티(publicity)권이 오래 전부터 폭넓게 인정돼 왔다.

예컨대, 미국 법원은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자니 카슨)가 진행하는 '투나잇 쇼'의 오프닝 멘트가 "Here's Johnny"

인데, 어떤 회사가 'Here's Johnny'라는 이름의 휴대용 변기를 제작 및 판매한 사안에 대해, 위 회사의 행위는 자니 카슨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인격권이 아닌 재산권으로서 유명인의 인지도 등에 따라 높은 금액의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초상 등의 보호에 더욱 효과적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소설 책과 관련해 핵물리학자였던 고(故) 이휘소의 유족들이고인을 모델로 한 위 소설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한 이래 여러 사건들에서 퍼블리시티권 침해 여부가 문제됐다(참고로, 위 소송에서 고이휘소 유족들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법률에서 퍼블리시티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판례를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그러나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고, 하급심 판례의 경우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판결과 이를 부정하는 판결이 모두 존재하는 상황이다.

퍼블리시티권 문제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서 퍼블리시티권을 저작권법 등에 도입해 입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도 수차례 이뤄졌다. 2015년경에는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는 '인격표지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법률안이 폐기됐고, 2020년 11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에도 퍼블리시티권을 '초상 등 재산권'이라는 이름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위 개정안은 '초상 등'을 '사람의 성명, 초상, 목소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초상 등 재산권'을 '자신의 초상 등이 일반 대중에게 널리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그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권리명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초상 등 재산권'이 '재산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이를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보호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초상 등 재산권이 그 재산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에게 상속된다는 내용과 초상 등 재산권이 재산권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그 사망 후 30년간 존속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물론 저작권법에 퍼블리시티권을 도입하는 위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체계적인 관점에서 반대하는 의견도 결코 적지 않다. 하지만 신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매체의 발달에 따라 사람의 초상 등의 경제적 가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판례를 통해서든 입법을 통해서든 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한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

SKT, 설 연휴 어르신 230명에 도시락 지원

한 끼 나눔온택트 프로젝트 일환 오는 4월 말까지 식사 지원 진행



SK텔레콤과 협업하는 사회적기업 행복도시락 직원이 영등포 지역 돌봄 대상 노인에게 도시락을 배송하고 있다. /SK텔레콤

SK텔레콤은 설 기간 영등포 지역 어르신 230명을 대상으로 도시락을 전달하는 활동을 시작으로, 오는 4월 말까지 어르신 식사 지원 프로그램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SKT의 이번 식사 지원 활동은 SK가 그룹 차원에서 추진 중인 '한 끼 나눔 온(溫)택트 프로젝트' 릴레이의 일환이다.

SK 각 계열사 및 SK와 공감하는 지방자치단체·기관·사회적 기업들은 함께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무료급식소가 운영을 중단한 것을 감안해 '한 끼 나눔 온택트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SKT는 지난 8일 오후 영등포 지역 어르신들에게 처음으로 도시락을 배송

했다. 설에 앞서 도시락을 전달해 어르신들이 식사 걱정없이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주 2회 제공되는 도시락은 단백질과 야채 등 고른 영양 섭취를 고려한 반찬으로 구성되며, 씹기 쉽게 조리해 어르신들의 식사 편의를 고려했다.

도시락 지원 사업은 결식 이웃 지원 도시락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행복도시락'과 노인층과 병원 대상 식사 공급 사업을 하는 소셜벤처 '잇마플'과 함께 진행한다.

또 건강식과 반찬을 담은 대화용기는 어르신들의 식사 이후 회수돼 깨끗하게 세척 및 재활용하는 등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도 최소화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장관실 장관비서실장 이준호

부음

▲최경태씨 별세, 최인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씨 부친상 = 14일, 부산 시민장례식장 2층 VIP실, 발인 16일 오전 8시30분, 장지 부산영락공원, 051-636-4444
▲유영소(전 대전민중교회 목사)씨 별세, 달상(기독교한국신문 대표)·효상(뉴스스 대전충남본부 취재부장)·순옥(미국 감리교 목사)·순화·연상(당진신평요양센터 원장)·연옥(세종충버

오케스트라 단장) 부친상, 김영대(미국 감리교 은퇴목사)·강신우(개인사업)·홍종원(중등교사 은퇴)·박영기(개인사업) 장인상, 박미자(서울꿈나무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원장)·김정미(대전시넷별재가노인복지센터 팀장) 시부상 = 14일 대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 특 201호, 발인 16일 오전 7시 40분, 장지 충북 괴산군 호국원, 042-600-6660
▲김국향(전 KBS 아나운서-PD)씨 별세, 현정주(전 KBS PD)씨 부인상, 현민지·현민정씨 모친상, 박종택씨 장모상 = 14일 오전 1시,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6일 오전 8시, 02-3779-1526
▲황학수(전 삼성생명보험 사장·전 삼성카드 부회장)씨 별세, 김상선씨 남편상, 황웅성(재미)·황금선·황혜진·황민성(삼성증권 이사)씨

부친상, 김원기(하이투자증권 이사)·이상엽(KAIST 생명화학공학과 교수)씨 장인상, 김현마·노승진씨 시부상 = 11일 오전 10시30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16일 오전 8시, 장지 충북 충주 진달래메모리얼파크, 02-3410-6915
▲박경임씨 별세, 김태영·김한영·김대영·김영자·김삼미씨 모친상, 김영종(서울 종로구청장)·최성원씨 장모상, 박혜리씨 시모상 = 14일 오전 2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6일 오전 5시30분, 장지 전남 고흥 선영, 02-2072-2018
▲최예순씨 별세, 설태환(전 전북은행 본부장)씨 모친상, 설정욱(전북도민일보 기자)씨 조모상 = 14일, 전주 뉴타운장례식장 503호, 발인 16일 오전 9시 30분, 063-278-4444